

불교여성개발원 10월 창립

교육위·가정위 등 6개 상임위 설치...23~24일 봉은사에서 워크숍

불교신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불자 교육 및 활동가를 양성할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이 10월 28일 오후 3시 조계사에서 창립된다. 이번 여성개발원의 창립은 21세기를 맞아 여성불자의 새로운 흐름을 여는 교류와 협력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여성개발원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인자, 경기대교수)는 8월 31일 회의를 갖고 9월 중순까지 이사, 감사, 교문, 자문위원, 상임위원을 인선한 뒤 9월말 창립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조직점검과 대중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불자여성워크숍을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서울 봉은사에서 열기로 했다. 1백명의 여성불자가 참여할 이번 워크숍에는 '의사소통훈련' '불교여성개발원의

활동과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참선, 법문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평등실현을 목적으로 창립되는 불교여성개발원은 창립과 함께 △불교여성학 연구 및 이론개발 △여성교육 및 활동가 양성 △타단체와 교류 협력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여성 사회복지 향상사업 △생활문화운동 등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연구·교육위, 가정위, 여성복지위, 대외협력위등 6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주영 간사는 "불교여성개발원은 부처님의 평등사상 관점에서 여성학 이론을 새롭게 개발하여 한국사회의 패권적 여성운동을 바로잡겠다"며 "여성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탕하여 불교와 세계를 바라보고, 자비사상을 사회속에서 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연대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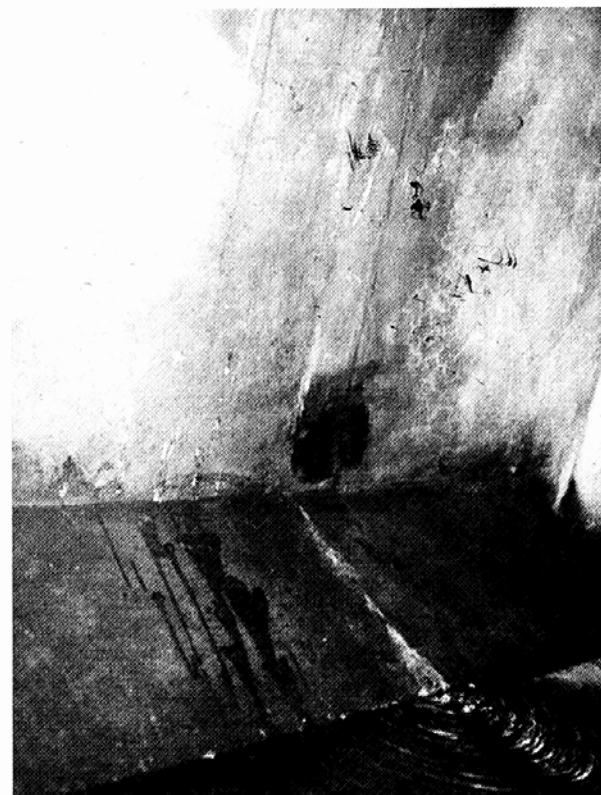
한편 8월 18일부터 '여성의 지위와 역할향상'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리더십 기초교육에는 30여명의 교계 여성활동가들이 참여했다. 9월 열리는 기초교육은 8일 '원활한 의사소통(김남선, 참교육연구소 소장)', 15일 '능숙한 회의진행(송혁관, 휴먼넷 소장)' 등의 강의를 통해 불교대학 4층 소법당에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열린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스님, 호법분과위원장 대인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중앙종무기관(종무원 교육원 포교원) 종무보고 △중앙감사 특위 구성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총무원에서 제출한 사면 실시를 위한 중원개정안은 중원특위의 논의에 따라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대학본부와 1수행관(비구기숙사) 사이의 비상발전기실 내부 바닥에 물이 새 흥건하게 고여 있다. 지난 해 보수를 요청, 보수 공사를 했으나 여전히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

재가연대, 대학생설문 불교입문 언제? "대학때" 70%

초·중·고 불교학생회 활동이 대학진학 이후까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포교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8월 3~6일 대불련 회원 302명(남자 138명, 여자 1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가불자 활동방향 정립을 위한 의견조사'에서 드러난 것.

이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불자의 실행경력은 응답자의 69.9%가 대학교 불교학생회부터였으며, 고등학교불교학생회부터(14.2%), 어린이법회부터(11.1%)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 이후 불교에 입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불교활동이 대학진학 이후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교 불교학생회 활동이 새로운 불자를 만들어 내는 포교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생 불교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재정지원(4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양한 실행프로그램 개발(18.3%), 교리교육 프로그램 개발(17.3%), 지도법사 및 지도교수 지원(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경 기자

"종교와 권력 밀착 역기능 양산"

종교전문가들 '당대비평' 가을호에 비판

계간 <당대비평>이 최근 발행된 가을호에서 '권력으로서의 한국 종교'라는 기획으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주요 종교의 역기능과 불명치를 짚아주고 나섰다.

'권력으로서의 한국 종교'라는 큰 제목 밑에 '한국 종교, 열광과 침묵 사이에서' (장석만 한국종교연구회 연구원) '불교계, 종단 권력의 정치학' (김종찬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개신교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이진구 한국종교연구회 연구원) '한국 천주교회

의 빛과 그림자' (조현범 한신대 강사) 등 네 편의 글을 실었다. 장석만씨는 "종교적인 삶은 제멋대로 세상 편히 살아가는 삶과는 매우 다름에도 자신의 안락함과 권세를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파국을 모면하려면 종교 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 지속적으로 열려야 하는 것이다"는 언급이 이 기획이 전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기조 발제에 해당하는 '한국 종교, 열광과 침묵 사이에서'를 통해 장석만씨는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종교적 상황을 짚어보며 우리나라 종교 문제를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의 자의적 적용 △가부장적인 종교 폭력 △종교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비판의 측면에서 해부하고 있다.

장씨는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는 대부분의 한국 종교가 지니는 부정적인 모습"이라며 신부·수녀·목사·여신도, 비구·비구니 관계는 불평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목사와 여신도를 어르신·하녀로 대비한 장씨는 불교계의 비구·비구니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의 강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한국의 비구승들은 살불살조(殺佛殺祖)의 선(禪) 전통을 이어받았어 하면서 남들에게는 모든 권위를 타파하고 도진하는 제스처를 보이지만, 자신들 사이에서는 지독한 위계질서와 골목대장식 편싸움에 파묻혀 지내고 있다."

한편 김종찬씨는 돈·문종·종권을 키워드로 조계종의 권력구조를 분석하고 "돈이 있어야 거대한 문종을 형성하여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고, 돈의 집적을 위해서는 거대사찰을 장악해야 하며, 거대사찰을 장기적으로 점유하기 위해 조계종단의 종권을 장악해야 하고, 종권 장악에는 정치권력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악의 순환 고리가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벽 금가고 물새는 승가대 김포학사

조계종, 풍림건설에 재시공 요청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중인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에 또다른 부실이 발견돼 다시 재시공 협의에 들어갔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시설팀에 따르면, 8월 28~29일 현장 점검 결과 대학본부, 교수회관, 강의동, 수행관(기숙사) 등 모든 건물 지하층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등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의동 건물 외벽에도 지는 지 1년만에 폭 4~5mm의 균열이 나타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에 설치된 통신·고압선로 맨홀에도 물이

신도교육위 곧 발족

조계종포교원 하반기계획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연)은 8월 28일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내 신도교육위원회 발족 등 하반기 중무계획을 발표했다.

포교원은 내년부터 신도교육 전면실시를 위해 교육별 교육안, 교재, 교안등을 개발하는 것을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직접단체 연합대회 개최 △군포교 제도개선 및 군포교위원회의 구성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경승산 지인 및 활성화 △포교활동사례집 발간 △교법사 수련회 개최 △불교교정소년지도자 간담회 △불교어린이교사대학 설립 등을 통해 불교포교 확대에 나선다.

김원우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적극적으로 나서자!

봉은사 '아셈NGO 포럼' 열기로

최근 종무회의서 결정

'아셈 NGO 포럼'이 봉은사에서 열리게 됐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최근 종무회의를 열고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리는 '아셈 2000 민간단체 포럼'을 봉은사에서 개최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아셈 NGO 포럼 사무국으로부터 봉은사를 개최지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개최가 어렵다는 의사를 7월말경 밝힌 이후, 개최지 제공이 불교계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래 다시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1면 '종교교류'서 계속

들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역시 교계의 자양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인 종교 모임에 참가하는 횟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성진(전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 박사는 "국제적인 흐름을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전담 부서'가 없어, 국제 종교 모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국제적인 종교단체 대부분은 중앙 조직보다는 지부·지역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지부·지역 조직과의 맞닿는 창구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서는 국제 종교 모임의 현장에 들어설지 못한다. 조계종과 진각종의 경우 올해 초 총무원과 통일원 신하 해외교류 전담 기구를 신설했지만, 아직까지 종단 차원의 해외교류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갈월사 영탑(靈搭)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영탑▶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공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땅에서 출토된 비록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댁의 초제부터 77세와 49세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재산 지내기에 불편하나 영탑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헌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름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보고 싶은곳 · 영원한 심터입니다. · 자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